

#1 사무실 / 낮

한 남자. 복도로 걸어온다. 그 남자는 세준이다. 긴장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온다. 알 수 없는 오묘한 빛이 세준을 비춘다. 세준, 복도 끝에 다다라 문 앞에 멈춰선다. 그 커다란 문에는 '사람을 완벽하게 죽이는 법'이라 써 붙여져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세준. 눈 앞에는 긴 테이블을 두고 마주보게 의자가 놓여있다. 한쪽 의자에는 한 남자가 먼저 와 앉아있다. 그 남자는 태수이다. 태수의 앞에 앉은 세준. 태수는 세준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한다.

태수는 큰 키에 떡벌어진 어깨, 깔끔하고 선해보이는 인상을 가진 세준을 보며 만족한다.

태수N

(세준을 눈으로 훑으며) 이정도면 뭐..

그러다 세준으로 향해 입을 연다.

태수

(무뚝뚝하고 비장하게) ...이런 일 해본적 있어요?

세준

아뇨. 처음입니다.

태수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각오 하고 오셨죠?

세준

(열의에 가득 찬 표정) 네. 그럼요. 저 꼭 하고 싶습니다.

태수

그럼 잘해봅시다. 연락드릴게요.

#2 태수의 방 / 낮

태수의 방이다.

태수의 방 벽면 인서트.

벽에는 사람의 신체부위에 대한 것들. 사람을 죽이는 방법. 흉기사진. 알 수 없는 여자들의 사진 등 여러 가지의 섬뜩한 자료들이 붙어있다.

태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중얼 거린다.

그리고는 이내 노트북을 켜고 글을 적기 시작한다.

여기서 태수가 여자를 죽이려는 동기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동기...

태수

두 번의 실패는 없어. 이번엔 꼭 성공시켜야지.

태수가 노트북에 적은 글씨는 “꼭두각시”이다.

#3 길거리 / 밤

어두운 밤. 세준과 태수는 함께있다. 둘은 계단 위에서 아래의 길을 내려다보고 있다.

태수

조금만 기다리면 나타날 거야.

곧 이어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한 여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태수가 세준에게 고갯짓을 한다.

태수

잘 봐둬. 저 여자야. 네가 죽일 여자.

세준은 그 자리에 서서 채원을 한참을 바라보았다.

#4 방 안(사무실) / 밤

어두운 방 안. 세준은 책상에 앉아있다. 태수는 세준에게 핸드폰 하나를 쥐어준다.

태수

(핸드폰을 건내며)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대상을 파악하는 일이야. 그 여자 핸드폰을 그대로 복사한 핸드폰이니까 그 여자의 동선, 주변인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해.

세준은 태수가 건내 준 핸드폰을 열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사진첩등을 열어본다.

#5 길거리 / 밤

세준. 길을 걷고 있다. 그때 세준의 전화기 진동이 울린다. 발신자는 태수이다. 세준 태수의 전화를 받는다.

세준

여보세요.

태수

너무 따라붙지 말고 천천히.

세준

네.

세준이 채원을 따라가고 있다.

태수

오늘은 일단 사는 곳만 확인하고 빠지는 걸로 하자.

세준

네. 그럴게요.

세준은 채원의 뒤를 계속 따라가고 있다. 채원이 집으로 들어가고 세준은 그런 채원을 확인했다. 금방돌아 오라는 태수의 말과는 다르게 계속 채원의 집 앞에서 멍때리고있는 세준.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태수가 세준을 옆 골목길로 확 끌어당겼다. 태수가 세준에게 다그쳤다.

태수

내가 오늘은 집까지만 확인하고 금방 돌아오랬지.

갑자기 끌어당겨진 몸에 깜짝놀란 세준. 태수가 세준에게 고갯짓을 한다.
세준이 바라본 그곳에는 채원이 집 밖을 다시 나와 남자친구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는 세준.

세준

아..

태수

이렇게 멍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들킬뻔했잖아.
항상 주위를 살피고 행동해야 돼.

세준

죄송해요. 순간 다음을 까먹어서.

태수

이건 연습해와.

#6 길거리 / 낮

태수. 길고양이 밥그릇에 사료를 넣는 채원을 바라보다가 생각에 빠진다.

태수N

음.. 이 타이밍쯤에서 한 번 만나줘야 할 것 같긴한데..

태수. 세준에게 전화를 건다.

태수

연습됐지? 지금 한 번 마주쳐야겠다. 내가 신호주면 저 여자랑 마주치자.

세준

마주치고 나면 그 뒤에는요? 이렇게 마주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태수

모르는 사람한테 죽어버리는 건 너무 시시하잖아. 네 존재를 알려야지

어느 순간 나타난 세준. 고양이 밥을 들고 채원이 있는 쪽으로 다가온다.
채원은 밥을 놓아 둔 뒤, 몸을 일으키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세준을 마주친다.
고양이 밥을 들고 있는 세준을 바라보고는 놀란다.

채원

어머! 저 말고 고양이 밥 놔주시던 분이 그쪽이셨어요?

세준

(머쓱하게 웃으며) 하하. 그쪽도?

마주보고 웃고있는 두사람. 먼발치에서 바라보고있는 태수.

태수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케이.

#7 사무실(소품실) / 낮

소품실엔 마네킹. 밧줄 등 수상한 물건들이 가득 있다.

함께 서있는 세준과 태수.

태수는 세준에게 사람의 신체 부위에 대해 알려준다.

태수

(세준의 손을 잡고 세준의 신체부위에 가져다 대며) 여긴 상완동맥, 칼로 한번에 찔렀을 경우 사망까지 1분30초. 여기는 경동맥, 사망까지 12초.

여긴 심장, 3초 또는 ...즉사.

세준은 태수를 바라본다.

태수

우리는 여기. 경동맥을 노릴 거야.

태수. 경동맥을 가르킨다.

태수

초보자는 갈비뼈에 가로막혀 있는 심장을 단번에 찌르기 쉽지않거든.

섬뜩한 웃음을 짓는 태수.

#8 사무실(소품실) / 밤

사람 목 마네킹이 세워져있고 그 앞에서 경동맥을 찌르는 행위를 하고있는 세준. 태수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세준의 앞에 칼을 하나 던져주는 태수.

태수

자. 흥기는 이걸로.

세준이 태수가 건내준 칼을 들고 다시 찌르는 연습을 한다.

세준의 숨소리가 들린다.

조금은 어색한 세준. 태수가 세준의 자세를 고쳐잡아준다.

태수

(칼로 경동맥을 찌르는 시늉을하며) 손을 순간적으로 높게 들고 한번에 썰게 내리 꽂아야해. 최소 6.4센치를 찔러 넣어야한다고.

세준

네. 한번에...

또 다시 연습하는 세준을 바라보는 태수.

세준에게 말을 꺼낸다.

태수

일주일 뒤, 밤11시. 장소는 그여자가 집으로 가는골목에서.

놀란세준이 태수를 바라본다.

세준

별써요?

태수

시간 더 끌면 지루해지기만 해. 하루빨리 끝내야지

세준

알겠어요.

태수

마음 단단히 먹어.

#9 골목길 / 밤

늦은 밤. 채원이 길을 걷고 있다. 저번에 세준이 따라갔던 채원이 집으로 가는길이다. 그리고 뒤에서 채원을 따라 걷고있는 세준. 주머니 속에 칼이 잘 들어있는지 꺼내어본다. 계속 뒤에서 따라가는 세준. 인기척을 느낀 채원이 뒤돌아보자. 세준은 장애물 뒤에 숨는다. 불안함을 느낀 채원. 조금은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빨라진 채원의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따라가던 세준. 말없이 걷는 두사람의 추격전에 긴장감이 흐른다.

문 앞에 선 채원. 가방을 열어 열쇠를 찾기 시작한다.
채원을 뒤따라오던 세준의 귀에 태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태수(무전기. 목소리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점점 가까워지는 세준과 채원.
채원은 여전히 가방 속 열쇠를 찾고 있다.
오늘따라 열쇠를 찾는 시간이 길어진다. 채원 불안함을 느낀다.

그 순간 태수가 세준에게 사인을 준다.

태수(무전기. 목소리만)

지금! 지금이야!

세준은 태수의 소리를 듣고 채원의 어깨를 잡고 돌려세운다.
놀란표정의 채원. 세준은 손에 들린 칼을 높이 들고 그대로 채원의 경동맥에 깊숙히 찔러 넣는다.

푸슈. 소리가 들리고 세준의 얼굴에는 빨간 피가 튄다.
채원이 그대로 쓰러지고 세준은 자신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 확인한다.
그리고는 웃는다.

세준

(피식 실소터트리며) 아 마지막대사뭘로하지....

세준은 실소를 터트리다 이내 광기어리게 웃는다. 그때 누군가의 까악! 비명소리가 들린다. 누군가가 이 광경을 목격한듯하다. 잠시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조명이 세준의 얼굴을 물들인다. 여전히 세준은 웃고 있다.

#10 골목길 (영화촬영장) / 밤

그 순간. 오케이- 컷! 소리가 들린다.

카메라가 줌 아웃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영화촬영 현장임을 보여준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오케이 컷! 사인을 내리는 영화감독 태수가 보인다. 태수는 일어나 세준에게 향한다. 태수가 세준에게 향하는 모습 뒤로 다른 스탭들이 따라와 채원을 일으켜 챙기는 모습이 보인다.

태수

(상냥한 목소리로)

아~ 배우님. 연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채원을 찌르는 타이밍 맞춰서 다시 한번만 더 가볼게요

세준

네네. 감독님 사인에 맞춰서 찌르면 되죠?

태수

네네 그럼요. 제가 사인주는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칼도 위에서 아래로 더 힘차게 !!

태수는 세준에게 채원을 찌르는 액팅을 친절히 설명해준다.
그리고는 어딘가에 있을 스탭들에게 소리치며 모니터 앞 본인의 자리로 돌아간다.

태수

(스텝들을 향해) 세준배우님 얼굴 분장 좀 다시해드려 ~!!

다시 모니터 앞에 앉은 태수.

화면속으로 슬라이트가 들어온다.
슬라이트에 적혀있는 제목은 '사람을 완벽하게 죽이는 법'
연출감독 한태수.

태수. 슷 사인을 외친다.

태수
(확성기)
레디- 액션!!

태수의 사인과 함께 블랙화면 엔딩.
영화의 타이틀이 뜬다.
“꼭두각시”